

삼양사, 국산 천연세제 판매계약

그린케미칼 <슈가버블> 판매대행 ... 그린은 생산·연구개발 전념

삼양사는 환경벤처기업 그린케미칼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천연세제 <슈가버블>을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한다고 1월31일 발표했다.

그린케미칼이 개발한 슈가버블은 식품원료인 설탕과, 올리브, 밀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제조한 세제로 아토피성 질환이나 주부습진 등의 피부 질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삼양사는 설명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신유통 확대와 웰빙사업 강화 측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으며 앞으로 삼양사는 마케팅과 판매를 전담하고 그린케미칼은 생산 및 신제품 연구개발에 전념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2/01>